

□ 빗 소리 21

빗 소리

주요한

비가 옵니다
 밤은 고요히 깃을 벌리고 ^{시냇물}
 비는 뜰 위에 속삭입니다.
 몰래 지껄이는 병아리같이 ^{저녁}

이즈러진 달이 실낱 같고
 별에서도 봄이 흐를 듯이
 따듯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이 어둔 밤을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다정한 손님같이 비가 옵니다.
 창을 열고 맞으려 하여도
 보이지 않게 속삭이며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아침}
 뜰 위에 창 밖에 지붕에
남 모를 기쁜 소식을
 나의 가슴에 전하는 비가 옵니다.

22 한국 현대시 해설

... 4 연으로 이루어진 자유시.

구성의 분석

..... 제1 연에서는 총괄적으로 고요한 밤에 봄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제2 연에서는, 그 봄비가 오기 전의, 즉 그 봄비를 준비하고 있던 자연의 현상을 표현하고.

제3 연에서는 이 봄비가 자기와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표현하여 주고.

제4 연에 와서는 그 봄비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 .. 최 남진이 한국에 있어 자유형의 서정시를 맨 먼저 개척
감상(鑑賞) 한 시인이거나 주 요한은 그것을 최초로 현대시답게 성공시킨 시인이다. 마치 소설에 있어 근대 소설을 맨 처음 개척한 이는 이 인적이지만 그로 성공시킨 작가는 이 광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한 최초의 현대시다운 현대시로서 정평이 있는 시가 주 요한의 「불놀이」이다. 그러나 「불놀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읽어 보면 그 내용에는 근대적인 자각에 기초한 심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지만 그 표현은 너무 거칠고 산문적 기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가할 때 현대시의 묘미를 이루어 놓은 주 요한의 시는 「불놀이」보다도 「빗소리」라 할 수 있다.

「빗소리」는 1920년 대 초엽의 시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새롭고 놀라운 현대시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20년 대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현대시는 과거의 정형시의 영향을 얼마간은 그대로 받아 주로 리듬 중심의 음악성을 중히 여기는 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빗소리」에서는 음악성도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시각 중심의 이미지(心像) 수법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의 제1 연은 시각을 통하여 어떤 사물을 더욱 선명하고 흥미롭게 우리에게 보여 주는 영상 수법(映像手法)을 취하고 있다. 제2 행의 「밤은 고요히 깃을 벌리고」라는 표현은 밤이 온 누리를 덮어 주는 사실을 큰 어미 새가 그의 새끼들을 품어 주기 위하여 그 날개를 고요히 벌리는 사실

□ 빗소리 23

에다 비유하여,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회화적인 표현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시는 어떤 사상 감정이건 어떤 막연한 사실이건 정가이나 시각으로 선명하게 느끼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는 청각적 요소의 리듬을 중히 여겨 왔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각적 요소의 이미지(心像) 혹은 영상을 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다.

제3 행에서는 비가 뜰 위에 속삭이는 사실을 몰래 지껄이는 병아리 소리 같이(소리는 음울 효과상 약하였다고 봐야 함)라고 비유로써 구체적인 교련을 하여 비가 뜰 위에 어느 정도로 고요히 부드럽게 떨어지는가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에서는 시각적 영상보다도 청각적인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2 연의 제2·3 행은 그 표현이 매우 감각적이다. 비가 오기 전 바람과 따스한 남풍, 엷게 깔린 뽕얀 구름에 싸여 그믐달의 실낱같이 이즈러진 모습과 희미하게 된 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제3 연 제1 연과 제2 연에서는 봄비가 오려고 또는 오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제3 연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보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 봄비를 다정한 손님과 같이로 의인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봄비에 대한 체온을 느끼게 함으로써 이 봄비와 작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제4 연 ..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연인 제4 연에 이르러는 이 자연계의 봄비에다가 「남 모를 기쁜 소식을 나의 가슴에 전하는」하고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족적의 자유의 봄을 「봄 빗소리」에 의탁하여, 그것을 홀로 꿈꾸고 갈망하고 비밀히 기대하고 있는 작자의 심경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단순히 자연을 노래한 시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의 자유 독립 사상을 정면으로 노출한 시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연의 현상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작자의 민족으로서의 기대와 염원과 희망이 은연 중에 스며들게 한 매우 자연스러운 시라고 할 수 있다.

【주제(主題)】 빗소리로 듣는 자유의 봄 소식

나 의 침 실 로

이 상 화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목가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련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 오너라.

마돈나! 오려므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오
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
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
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뭇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야, 너
도 들느냐?

마돈나! 지난 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자. 침
실로!

48 □ 한국 현대시 해설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오 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십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燭入불을 봐나.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이 되어 알푸른 연기로 꺼지려는
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림자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
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가슴이 뛰
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므나.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얼 이도 없느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므나, 나의 아씨
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
려논도다.

□ 나의 침실로 49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꼬
을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
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구
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
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 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이러한 형식은, 12 연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전
구성의 분석 연으로 된 시를 2 행씩 짝지어 놓은 2 행 시라고 봄이 타
당할 것이다.

이 상화의 시 표현의 특징은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작품에서
도 그 구성에 합리적인 치밀한 짜임이나 순서를 별로 두지 않는 점이
다. 그저 방분한 감정을 솟아오르는 대로 방출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
따라서 간결성이 적고 좀 사실이 많은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면서도 이러
한 특징적인 결점을 그의 특유한 감성 분출의 왕성한 매력으로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이제 그런대로 이 시의 상을 쓰여진 순서대로 간추려 본다.

제1 행(2 행을 합친). 밤이 깊었으니 마돈나 보고 달려 오라고. (『수필도

50 □ 한국 현대시 해설

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라」는 상당히 관능적인 표현으로 수밀도와 같이 부드러운 두 유방 사이에 맺힌 땀 방울을 두고 하는 표현이다. 「꼭거지」는 이연희 뜻).

제2 행. 모든 것은 비리고 가장 소중한 마돈나의 몸만 오라고. (「눈으로 유전하던 긴주...」는 시각적 가치 즉 표면적 가치밖에 없는 사물들을 가리킴)

제3 행. 밤의 한 구석에서 외롭게 두려워 떨며 마돈나 오기를 기다린다고.

제4 행. 내가 준비해 둔 침실로 가자고. (「넓은 달은 빠지려는데」는 이즈러진 달이 공중으로 빠지려는데 —— 즉 사라지려는데)

제5 행. 기다리는 초조감과 실망감을 감박이는 꽃물과 짙은 심지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제6 행. 킁킁한 밤이지만 누가 볼까 무서워 숨어서 마돈나 오기를 기다린다고.

제7 행. 이 밤이 새기 전에 어서 와서 가자고. (「사원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는 나인 새어 헛탕치기 전에)

제8 행. 후회나 두려움 따위는 벌써 초월한(외나무다리를 건너 있는) 내 비밀한 침실로 어서 오라고.

제9 행. 기다리는 초조를 다시 강조하고.

제10 행. 안 갈 수 없는 운명임을 다짐하고. (「내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은 현실을 고쳐 만들 수 있는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

제11 행. 밤이 주는 꿈, 곧 우리가 지금 설제하는 꿈, 그것은 또 두 인간이 부둥켜 안고 궁구는 생명의 꿈인 것이니,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서 나의 침실로 가자고.

제12 행. 그러기 위하여 이 밤이 새기 전에 네가 오기를 기다리며 너를 부르고 있다고.

..... 감상(鑑賞)..... 이상의 구성 분석에서 나타나 있듯이 이 시에는, 불행한 현실을 떠나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동경하는 작자의 심

□ 나의 침실로 51

정이 다분히 퇴폐적이고 예술지상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퇴폐성과 예술지상주의적 색채는 이 상화의 초기 작품의 특징이다. 이 시의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되는 「마돈나」는 그러므로 작자의 꿈의 실현을 호소하는 대상으로, 「침실」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동경의 세계로, 그리고 「밤」은 침실을 고조시키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설정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주제(主題)】 불행한 현실을 버리고 미지의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는 마음.

〔주〕 마돈나(Madonna)·본디 ‘나의 부인’이란 뜻으로 귀부인에 대한 존칭. 성모 마리아의 칭호.

목거지 모꼬지의 사투리.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그 밖의 일로 모이는 일. 향연(饗宴)

주밀도(水蜜桃)·복숭아의 한 가지

그리매 그림자의 옛말

더우잡고 ‘더위 잡다’의 사투리 (함남·전남). 높은 데에 오르려고 무엇을 끌어잡다.

예술지상주의(藝術至上主義): 「예술을 위한 예술」을 원리로 삼고, 예술의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

〈지은이〉 이 상화(1900~1941) 시인. 경북 대구 태생 아호 상화(尙火). 중등학교 졸업 일찍부터 월탄·노작·도향·회월 등과 더불어 백조동인으로 활약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토오쿄오 외국어학교 불어과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구 교남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낭만적인 풍조와 감상적인 기질과 상징적인 수법, 분방하면서도 탐미적인 미묘한 매력은 백조파 특유의 대표적인 그의 시풍이었다. 상화는 당시의 백조파 시인 중 누구보다도 일종의 대시대적인 저항과 고민을 시에 표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중국 방랑 중에, 세상을 떠났으며, 유고 시 10여 편이 백 기만에 의해서 시집 〈상화와 고월〉에 수록되어 있다. 김 소운 등의 주선으로 대구 달성공원에 시비가 건립돼 있다.